

AUTHOR 이금삼

TITLE 칼빈주의와 학문

IN 개혁주의

3집 (4, 1965): 22-27.

백성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히 12:5~10, 계 3:19.참고)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게 된다(6절) 광야에서 이스라엘백성이 받은 징계는 사랑의 징계였다 그징계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일으켰으며 광야 그곳이 자기들의 안식처가 아니고 자기들의 안식처는 가나안 땅임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백성들에 사랑의 징계를 주어 회개를 일으키며 신자의 살곳이 현실이 아니라 내세인것을 깨닫게 하신다. 위대한 개혁자인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세상에서 건고한 평화를 가질수 없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전쟁과 소동과 도둑과 손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며 일시적인 세상부에 지나친 동경을 가지지 못하게 또한 그것을 의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포로로 흉작으로 큰화재로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빈곤케 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부부의 축복을 너무 단축하고 기뻐하지 않도록 사악한 처로 말미암아 고민에 빠지게 하며, 때로는 악한 자식들을 주어 겸손하게도 하시며 때로는 자식이 없거나 잃어버리게 해서 그들에게 괴롬을 준다.그러나 이와같은 것을 통해서

도 고치지 않으면 병고와 위협으로써 모든 인간적인 축복의 불안전성과 그일시적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칼빈의 기독교강요 3권 9장참고)

하나님은 사랑하는자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데 이사랑의 징계를 받는자는 행복될 사람이다(시94:12)

祝 부 활 절

기 장 읍 교 회

목 사 박 치 덕  
장 노 송 원 복  
이 남 결

제 일 영 도 교 회

목 사 박 손 혁  
장 노 송 태 석  
전도사 최 해 일  
박 인 순

삼 일 교 회

Tel @ 7556

목 사 한 상 동  
부목사 정 흥 석  
전도사 양 승 달

서 문 로 교 회

목 사 황 철 도  
부목사 허 순 길

칼빈主義와學問

이 근 삼

一. 出發點

하나님은 被創造者가 아니고 創造者이시며 永遠하신 분으로 모든 實在의 根源 이심을 믿는 칼빈主義 信者는 創造를 前提로 하고 그의 思考를 시작한다. 同時에 그는 이 創造觀念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에게는 宇宙內에 일어나는 모든 現象, 모든 法則, 모든 事件들은 다 하나님을 그 出處로 한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이와같이 主權的 創造神을 前提로하되 그 神을 人間自身的 理性으로 생각해 낸 이로 믿는것은 아니다. 그 理由는 이 神은 그 自身을 新舊約 성경에 啓示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神은 萬物의 根源者이므로 사람은 그 神의 事蹟을 研究하므로 보고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罪로 타락하여 그의 눈은 自然히 又한 自意的으로 神의 主權에 對하여 감기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新舊約 성경에 기록된 敎

的啓示로서 참된 해석을 받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自然界를 바로 보거나 理解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기독교 敎育과 학문은 그저 主權的 神을 前提할뿐만 아니라 그 自身을 人間에게 啓示하시는 主權的 神을 前提로 시작한다.

宇宙는 神의 創造하신 바 인고로 宇宙는 그의 숨쉬로서 神을 나타내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罪로 어두워진 우리 人間에게 빛으로 나타나서 歷史에 나타난 神의 啓示를 알게하고 直接的으로 또한 明白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 그런고로 기독교 敎育과 學問은 기독교 信者로 하여금 모든 생각을 성경에 나타난 主權的 神은 創造主이고 또한 宇宙의 궁극적 解釋者이심을 믿는데 引導하는 것이다.

한결을 더 나가서 기독교 敎育은 神의 存在를 생각하되 단순한 數學的 公式이나 歷史前 아메-바로 밀

는 것이 아니라 神을 알되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救贖者로 알게 되었으므로 그 神은 永遠하시며 全知全能하시며 無所不在하신 人格者로 믿는다. 그는 이 神은 主權的으로 行하셔서 人間의 意志나 理性에 自身을 服屬시킬 必要가 조금도 없는 분으로 안다.

그러므로 기독교 學者가 自己가 살고있는 宇宙를 理解하기 위해서 全力을 다하나 神의 存在의 主權의 神秘 앞에는 그 以上 더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결코 問題解決의 必要를 회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게으른 結果도 아니라 다만 그것은 그의 前提에 包含된 것이다. 神이 이 宇宙를 知識의 對象으로 지으셨다 할찌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人間의 知識은 神 自身이 그를 유한한 被造物로 지으셨다는 事實을 通하여 制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自己와 自己의 知識의 對象이 되는 宇宙를 意圖하고 創造하신 創造主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말씀인 성경을 通하여 神의 意志에 따라서 알 수 있도록 教育을 받아야만 하는 位置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칼빈주의 예시는 人間의 教育을 定義하여 "하나님의 解釋에 사람의 생각을 맞추는 일이다"(Education is implication into God's interpretation)라고 한다.

被造物 人間이 創造主의 생각과

意志에 떠러서 생각하며 宇宙를 研究하고 征服하여 그 創造主께 奉獻하고 萬物의 統治者의 代理者가 되는 것은 人間의 任務이다. 사람은 先知, 祭司, 王의 職責을 神으로부터 받았다.

## 二. 方法

그러면 칼빈主義者의 教育, 學究의 方法은 어떤가? 非基督者는 自然, 歷史, 社會問題를 研究할때 客觀的 方法을 쓴다. 과거의 經驗을 土臺로 하여 그위에 當面問題를 假說로 하고 실천하여 그 結果가 그 假說을 正當化하면 새로운 眞理를 樹立 하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假說이 正當化 되지 않을때는 또다른 問題를 걸고 眞理를 탐구한다고 한다. 科學的인 언혁, 귀납의 方法은 이렇게 科學과 學究의 基本的 方法이 되어있다. 十九世紀까지는 이 方法이 唯一한 것 같았으나. 近年에는 非基督 科學者들도 그와같이 單純하지 않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다. 가설은 궁극적인 것도 아니고 經驗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한 사람의 지식상태에 제한된 것이다. 假說은 항상 한 사람의 前提에 支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科學的 方法은 객觀적이지 못하고 궁극적이나 經驗적인 해석을 줄수도 없는 것이다.

칼빈主義 基督者는 어떤 絕對的 새것을 發見하려는 態度를 가지지

않는다. 그 理由는 神이 벌써 不變의 意義와 解釋을 萬物에게 주어두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가 努力하는 것은 神의 解釋을 확인 하기 위해서 自身을 神의 創造속에 맞추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學究는 自身의 技術과 함께 自身의 知識의 限度를 알고 그로 因해서 神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면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여기에 人間 自身의 限度란 主觀的으로 볼때 사람의 知性和 感覺은 有限한 存在로서의 것이므로 實在의 全體의 意義를 파악할 수 없고 人間經驗을 넘어서는 사상과 感覺을 理解하지 못한다.

基督敎는 主張하기를 人間의 知識은 罪로 因하여 정상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信任性이 없다고 한다. 罪의 狀態에 있는 사람은 主權的 神의 解釋없이 現象들을 理解하며 支配하려고 하며 그 結果로 人間社會에도 많은 無秩序를 演出하고 있다. 人間自身에 맡겨서는 결코 客觀的, 科學的 또는 正確性 있는 것은 되지 못한다. 오직 神의 恩惠로만 罪의 制裁가 있어서 科學的 結果를 조금이라도 期할 수 있는 것이다. 人間의 知識의 限度에 들게 되는 것은 궁극적 實在 自身의 無限性에 있다. 사람이 罪人이 아니고 完全히 客觀的이고 理性的이고 正確하다 할찌라도 그 人間自身은 宇宙의 궁극적 설명은 줄수

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申 29:29, 욥 38:2-42:6) 사람이 아무리 科學的으로 現象世界에 對한 많은 知識을 얻었다 하여도 궁극적 實在의 本質上 사람의 能力은 制限된 것이다.

하물며 罪의 영향하에 있는 人間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않은 學識은 더욱이 基督敎者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 教育과 學究의 研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란 무엇인가? 위에 말한것이 결코 계시를 바라고 科學的 研究의 一般의 方法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참된 基督敎學者는 그가 專攻하는 分野에 있어서 證明된 最善의 技術을 利用하되 自身의 과오의 가능성을 깊이 自覺할 것이며 더욱이 眞理의 神성령이 그를 겸손히 客觀的으로 또한 正確하게 지켜서 오직 성령만이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原理까지 有效한 結論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을 確信한다.

## 三. 結果

非基督敎 教育과 學究의 結論은 宇宙는 結局 미궁적 神秘로 化한다. 제임스 지-니 (James Jean)氏는 그의 神秘的 宇宙(The Mysterious Universe)에 말하기를 宇宙는 우연의 產物로 궁극적 미궁으로 끝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前에도 아인슈타인의 一般的 相對性

原理(Einsteins, Theory of General Relativity)이나 하이젠버그의 無限性原理(Heisenbergs Principle of Interminacy)로서 이와같은 宇宙의 미궁적 證據를 말하고 있다. 만일 과학적 방법이 모든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다면 왜 自然法則과 人格의 自由와 責任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결치 못하는가? 萬一 法則이 절대적이라면 責任的인 人間이 眞理를 위해서 自由롭게 탐구하는 學問은 어떻게 될까? 萬一 人格이 절대적이라면 法則은 또 어떻게 될까? 萬一 우연이 궁극적이라면 法則과 人格은 또 어떻게 될까? 이와같은 결과가 所謂 純科學的(Neutral Scientific) 方法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基督教에서 무엇이 '남은' 까? 칼빈主義는 主權的이고 人格的인 創造主이며 救贖主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이 宇宙는 舍性的 世界라는 確信을 가지고 마친다. 그의 結論은 그의 教育和 學究를 통해서 성경의 眞理와 教訓이 주는 根本的 知的 直觀이 어디까지나 正確 하였다는 것이다.

칼빈主義者는 結論하기를 "참된 科學的 進展은 神을 前提하지 않고는 不可能하다"(C. Van Til, Christian Theistic Evidences P11)라고 한다.

#### 四. 非基督教의 教育和 學問

#### 을 어떻게 보는가?

非基督教의 學究의 結果를 우리는 그것이 非基督教의 產物이라고 定罪하고 말 것인가? 그들이 성취한 업적은 學理만도 進化論, 經濟的 諸理論, 共產理論 等等 얼마나 많지 않은가?

所謂 不信의 學問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모세와 다윗은 그들의 準備時節에 가졌던 것이다. 바울역시 그랬고 이사야, 느헤미야, 누가등 그런 教育을 받았다. 그들은 받은 知的 훈련과 知識과 不信의 教師들로부터 習得한 理解를 利用하였다.

一般은총(Common grace)을 통하여 不信者를 全의 과오와 우둔에서 保存하여 自然, 歷史, 社會에서 위대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 하였다. 그외 문예, 음악, 기술 철학 등에서 성취한 모든 업적을 信者도 學的 分野에서 무엇을 이룰려면 인정하고 使用 하여야 한다.

그러나 信者는 항상 留意해야 한다. 不信者가 아무리 "事實"에 충실하다고 하여도 信者보다 더 客觀的인것은 아니다. 不信者는 그 假說을 가지고 推理를 시작하여 研究前에 가졌던 結論을 증명하기 爲해서 하는것이 많다. 이렇게 學的 연구에 있어서 事實과 假說의 혼합되는 것이다. 信者는 이런 事實을 批判的으로 보아야 하며 그 學理를

더욱 심각하게 또는 최종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 理由는 더 알게될 때에 그 理論이 잘못됐거나 편견적 이거나 또는 범위에 있어서 너무 制限된 것이 더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어떤 學的 假說이거나 기독교의 확실한 증거 以上으로 받거나 또는 信仰을 파괴할것 처럼 證據 필요도 없는 것이다. 모든 학문은 그것이 과오의 가능성을 가진 유한한 타락된 사람의 일임으로 批判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基督教의 不信學問에 對한 批判은 그들의 不信方法에 오는 構造的인 弱點 卽 出發一方法一結論의 不一致를 指摘하고 主權의 神으로 시작하여 마치지 않으면 自家撞着에 빠질 수 밖에 없고 論理的으로 됐다고 하면 有限한 實在의 自我存在의 基本假說이 모든 學識을 파괴하는 結果를 가져 온다는 것을 指摘하여야 한다.

#### 五. 基督教學問에 對한 信仰의 態度

信者의 學識은 첫째로 基督教을 이해하며 保守하기 위해서 必要하다.

萬一 우리가 基督教은 現存 萬物의 궁극적 意義를 나타 낸다는 것을 믿을것 같으면 그 教訓을 學的으로 說明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學問은 重要한 位置를 가지는 것이다. 學的研究는 人間活動과 思想의 全分

野에 있어서 基督教을 適用시키기 위해서 극히 必要하다.

이와같은 學問은 결코 反성령적이라 할수 없다. 基督教者는 그의 學究를 성령에 완전히 의뢰한다. 오직 眞理의 성령만이 眞理로 引導하기 때문이다(요 16:13) 信仰學徒는 그의 모든 재능, 능력이 성령의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 이 根本的 前提下에 學究한다면 그는 오직 自身의 知識增進만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創造的, 섭리적, 救贖的 役事를 더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것임을 認識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基督教學問은 科學 研究와 성경연구에만 適用된다고 하겠는가?

이런이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物理學, 化學, 生理學, 經濟學, 文學, 음악, 기술과는 無關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자는 不信者들에게 그런 分野를 責任 지우려고 한다. 그러나 萬一 宇宙의 物質的 實在 背後에 萬物의 創造主 이시며 保存者시고 統治者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참으로 믿는 信者라면! 또한 이분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選擇한 人間을 救贖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萬物, 知識의 全分野는 기독교자의 연구와 탐구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全分野의 學識을 가지고 들어갈려면 다음 두가지 基本的 要求조건을 인정해야 할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信者라는 自己의 立場을 알아야 한다. 自身과 他人의 하는 일을 계속 留意하기 위해서 信仰의 科學的, 哲學的 기초를 가져야 하겠다. 그와 꼭 같이 自己研究分野에 익숙해 져야 하겠다. 自己專門分野의 훈련에 자신을 위탁하지 않고는 學問할 수 없다.

둘째로 信者가 直接 生活환경에서 理解한 것을 宇宙의 궁극적 意義에 對한 解釋(例, 神의 存在, 神의 目的, 神의 行動)에 關係 시키려 할때는 극히 주의 해야한다. 우리는 罪人으로서 성경해석에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것을 認識해야 한다.

### 六. 學問은 하나님의 선물

學問은 基督者가 無條件 定罪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해야 할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保存하시고 救贖하신 實在을 理解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不信者는 事實 이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認識하지 못하나 그 目的에 貢獻하고 있는 것이다. 不信者는 自己의 研究결과를 神의 存在, 思想을 破하기 위해서 使用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므로 그는 오히려 自己 自身과 모든 人類의 경험 토대위에 스스로가 결코 형성할 수

없는 宇宙의 有効한 解釋이 있는 것을 認定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正面으로 反對하는 神을 그는 뒷문으로 받아 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無神論者는 神을 激烈否定하는 것이 無意識的으로 主權的 神의 存在를 認定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고로 학문은 배격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學識이 自身에게 法則처럼 自身의 本性을 잃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生의 主要目的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성경과 창조와 역사에 啓示된 神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서 恩惠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 하시므로서 되는것이다. 그런고로 基督者는 學問의 성취와 발견의 모든 영광을 神께 돌려야 한다.

基督者가 所有하는 學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의 能力과 지혜의 위대한 知識에서 온것이다.

그리하여 萬有의 主, 創造主, 保存者, 救贖者되신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 祝 부 활 질 —

부산 南교회 Tel ②4742

목 사 한 명 등  
장 노 박 봉 화  
전도사 석 원 태

## 敎界 뉴스

### <고려 신학교 소식>

△ 새로운 교수회

지난 1월31에 모인 이사회 실행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학교와 고신대학의 직무를 발표하였다.

1) 고려 신학교

교 장 홍반식 박사  
교무과장 오병세 박사  
학생과장 이근삼 박사  
도서관장 홍반식 박사  
서무과장 유현철 집사

2) 고신대학 (전라남도대학을 개칭했음)

학 장 홍반식 박사  
신학교과장 오병세 박사  
영문과과장 홍반식 박사  
기독교교육과과장 이근삼 박사  
교무과장 김성린 선생  
학생과장 김진경 선생  
도서관장 하도래 선교사  
서무과장 유현철 집사

△ 고신 동창회

1963년 12월 11일 오후 2시 고신강당에서 동창회를 하였는데 중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개선

회장 황철도목사 부회장 박상순목사  
서기 이달용목사 부서기 정길수목사  
회계 정종서목사 부회계 남영환목사

2) 재정

실입회원은 입회금의 20원 회원의 회

비는 50원

3) 신학교를 위한 염보

교교의 발전을 위해 회원은 매월 봉급의 백분의 2 이상을 염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총금은 전체부산 1754원)

△ 고신을 위한 전국후원회 조직

1963년 12월 12일 오후 3시 남교회에서 고신을 위한 전국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그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양진환장노(여수 총무교회)  
부회장 현호택장노(서울 중앙교회)  
서기 배경업집사(부산 남교회)  
부서기 송태석장노(부산제일영도교회)  
회계 박봉화장노(부산남교회)  
부회계 장사근장노(대구성밖교회)

△ 3월 10일에 개강 -

고신은 지난 3월10일 개강했는데 이반학기 등록된 학생수는 모두 120명인데 그중 신입생수는 47명 과별로 보입전수예과 1년 24명 2년 5명 본과1년 6명 전수과 1년 10명 연구과 2명이다.

△ 하기 신학교

많은 교육자들의 요청과 긴급하게 느껴지는 필요성에 의하여 고신에서는 급년 여름부터 다음과 같이 하기신학교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1) 날짜 1946. 7.7~17(2주간)

2) 장소 고려신학교

3) 수강자격 신학교 졸업생및 신학생 (학점이 필요한자에게는 3학점을줌)

4) 교수과목

구약과 현대문학 홍반식교수  
교회문화 사회 이근삼교수